

인류는 한 가족, 난민의 여정에 함께합시다

2017년부터 급속히 늘고 있는 난민들을 위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2017년 9월 27일 “난민의 여정에 함께합시다”(Share the Journey)라는 주제로 난민들을 위한 가톨릭 교회의 운동을 시작하면서, 난민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며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우리 교회의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민은 통계나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희망을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라고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이 먼저 그들을 환대하는 데 앞장서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난민과 관련된 통계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지는 우리 사회 대다수의 반응은 ‘난민들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이해와 인식이 아니라 배척과 적대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국내 난민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고 있고, 법적으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그들의 권리를 지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공식 해외 원조 단체인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호소에 응답하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외 난민들을 위한 한국 천주교회의 책임을 다하고자 지난해 2018년도 해외 원조 주일을 맞이하여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에게 난민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 한국 천주교회는 총 14개의 나라(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생계 지원 사업, 아동 교육 지원 사업, 그리고 의료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자유를 찾아 나선 목숨을 건 여정’에 함께 하였습니다.

난민들의 삶이 통계의 대상이나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을 때, 그들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 해 한국 천주교회 신자 여러분들께서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난민들과 함께하는 여정’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마태 19,26)라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약속이 지금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 이어 올해도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의 ‘난민과 함께하는 여정’에 한국 천주교회 신자 여러분들도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월 27일 해외 원조 주일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이사장 김운희 주교